

말레이시아 해양산업 보고서 (2024 년 7 월)

아니요.	카테고리	개요
1.	프로젝트 정보	<u>현사업</u> a) 해양경찰 24m 카타마란 PTV 프로젝트 (총 6 척) - Sabah (1척): LSE가 수주함. (LSE는 현지 선박 설계사로 선택됨) - Sarawak (1척): 현재 최종 조건 협상 중이며, 수주 대기 중에 있음. LSE가 수주할 것으로 보임. - 본토(4척): 입찰마감. 여러 조선소(MSET, Muhibbah, Gading 등)가 제안서를 제출. 시장 소문에 따르면 본토에 야드가 있는 조선소를 고객이 매우 선호함. LSE는 나머지 4척의 선박 수주에 미온적. b) MMEA 63m SAR 선박 프로젝트 - 현재, MMEA는 정부의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신조 또는 업그레이드 옵션을 여전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짐. <u>향후 프로젝트</u> a) Petronas OSV Safina 2단계 프로젝트: - 이 프로젝트는 <u>향후 4-5년 동안 최대 100척의 선박을 신조해</u>, 수명이 15년에 다다른 노후 OSV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려 함. - 페트로나스는 2023년 말부터 수주가 지연되고 있는 <u>향후 생산 작업 선박(POV) 입찰을 진행할 계획임.</u> - 이들(POV 어워드)은 <u>다양한 하위 부문에 걸쳐 약 145척의 선박에 대한 3+3년 계약상으로 예상되며, 총 계약 가치는 연간 RM20억 이상임.</u> 1단계는 2021년 장기 용선 (7+3+3+2년 총 15년)의 계약이 있으나 <u>입찰된 16척 (전체 5년 프로그램에 걸쳐 100척 예상) 중 11척만이 현지에서 건조되었으며, 여전히 남은 척수가 해외 건조 분으로 충족될 것으로 보임..</u> - Safina의 2단계는 <u>빠르면 올해 3분기 (2024년 3분기)에 입찰이 있을 예정. 업계 추정치는 10~20척 이상의 선박을 예상함.</u> b) 친환경 선박: - 친환경 선박은 <u>수소, 암모니아, 메탄올 및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전환 연료 선박 또는 대체 연료를 통해 환경 영향</u>

		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, 건조 및 운영됨 . ▪ MOSVA와 말레이시아 해양산업협회(AMIM)는 <u>특히 사피나 2 단계의 경우 앵커 핸들링 예인 공급(AHTS) 선박과 플랫폼 공급 선박(PSV)과 같은 대형 선박의 연비뿐만 아니라 친환경 선박의 전망을 재검토 중.</u> ▪ <u>친환경 선박에 대한 자금 조달은 더 쉽고 저렴하지만 선박 자체는 최대 20% 더 비싸짐.</u> c) 항만 예인선: 항만 운영자의 친환경 항만 예인선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. LNG 연료 예인선은 주요 고객이 매우 선호함. d) 어선: 말레이시아의 어업은 특히 심해 응용을 위한 새로운 어업 기술의 개발로 인해 번창할 것으로 예상됨. e) 고속 보트: 남중국해 분쟁으로 인해 집행기관 (RMN, MMEA, Police Marine)으로부터 고속정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.
2.	해상시장정보	<u>말레이시아 해상 주간 2024 (MMW24)</u> ▪ 2024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말레이시아 선주협회(MASA)가 주관하는 쿠알라룸푸르 컨벤션(KLCC)에서 열린 MMW24 참가 ▪ MISC, PKA, Tanjung Langsat Port (TLP), Tanjung Pelepas(PTP), Johor Port, Jasa Merin 및 기타 해양 기계 OEM 및 벤더와 같은 다양한 업체에서 올해 행사를 위해 부스를 설치. 



- **2024말레이시아 해양 주간**은 해운의 중요성, 주변 지역 사회 및 해양 환경 보호를 강조하는 플랫폼 역할 이행.
- 말레이시아 선주 협회(MASA) 및 기타 업계 이해 관계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촉진된 최신 국제 해사 기구(IMO) 개발에 대한 업데이트를 업계 관계자에게 제공.
- 국제 해양 안전 규제의 초석인 국제 해양 생명 안전 협약(SOLAS 1974) 50주년을 기념하며 "**미래를 향해하다 : 안전이 우선이다 !**"라는 주제로 발표함.
- **2024 말레이시아 해양 주간**에는 두 가지 주요 회의가 있음.
안전과 안보에 초점을 맞춘 이틀간의 말레이시아 해양 주간 회의와 IMO의 GHG 전략 및 기타 국제 기후 협약에 따른 지속 가능한 관행을 다루는 하루간의 녹색 해운 회의.

해양 대체 연료

- IMO의 2023년 온실가스(GHG) 전략에 대응하여 말레이시아는 선박의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함.
-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액화 천연 가스(LNG), 메탄올, 수소 및 바이오 디젤을 포함한 대체 연료를 탐색 중.

OSV 시장 정보

- 말레이시아 OSV 선주 협회(Mosva) 회장 자말루딘 오벵은 현재 O&G 업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말레이시아 선박이 약 250~270척이라고 말함.
- 이는 현재 시장 환경에서 300척이 넘는 선박의 현지 수요와 비교됨.
- 기존 선대도 줄어들고 있고 Mosva 데이터에 따르면 O&G 산업을 지원하는 말레이시아 선박의 약 80%가 11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이고, 2022년 페트로나스는 지속적인 운영 수준으로 인해 선박수요가 공급을 초과함에 따라 선박 운항 수명을 기존 1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남.

3.	관련뉴스기사	1)<u>PM, 교통부에 해상 시너지 강화 요구</u> ▪ 다툽 세리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<u>해양산업이</u> 더욱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통부가 조정 노력을 주도할 것을 촉구함. ▪ 총리는 또한 <u>포트 클랑과 탄중 펠레파스가 세계 10대 항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</u> 말함. ▪ 총리는 <u>중앙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및 공통 데이터 소스로서 말레이시아 해상 단일 윈도우의</u> 구현은 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함. 2)<u>모든 해상 투자를 환영하는 오픈 워터</u> ▪ 다툽 세리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(PM)는 " 말레이시아와 무역을 희망하는 <u>모든 해양 산업을 위해 말레이시아 해역을 계속 개방하라</u>"고 말함. ▪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<u>동서양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, 말레이시아가 해양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</u> 하며, 말레이시아가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는 대신 무역과 파트너십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함 . ▪ 말레이시아는 미국 및 유럽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, 현재 중국과 양자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, 총리가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면서 브릭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. 3)<u>MMEA, 내년에 전 USCGC Staffid 수령 예정</u> ▪ 말레이시아 해양경찰청(MMEA)은 내년 1분기 미국 볼티모어주에서 <u>준비가 완료되고 선박이 말레이시아로 다시 운송되는 대로 전미 해안경비정(Ex-USCGC) 스테이프드를 수령할 예정.</u> ▪ MMEA의 부국장 대행인 다툽 사이폴 리잔 이브라힘은 이 경비정이 <u>말레이시아의 해양 구역, 특히 남중국해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</u> 말함. ▪ 경비정은 길이 64.16미터, 폭 10미터, 무게 1,100톤으로 최대 12명의 장교와 63명의 다른 계급을 수용 할 수 있으며, 최고 속도는 최대 18노트. ▪ MMEA의 부국장 대행 사이폴 리잔은 <u>조달 예산이 3억 3천만 위안인 MMEA의 새로운 주력 선박에 대한 입찰 절차가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</u> 예상된다고 말하며, <u>선박에 대한 사양은 이달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</u> 예상, 프로젝트는 선임된 회사와 함께 내년 1분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.
----	--------	--